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카르포와 성 알패오 사도

제1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제6조 /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2,3 응송. 승천 축일 것 / 봉독서 79-80
-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 승천 축일 입당송 / 오순절 예식서 79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성 교부들 찬양송 / 85. B 178
- 성당 찬양송
- 승천 축일 시기송 / 오순절 예식서 80
- 사도경 : 사도행전 20,16-18. 28-36 / 260. 봉독서 84
- 복음경 : 요한 17, 1-13 / 261. B 29
- 성모송 / 259. B 328
- 영성체송 / 오순절 예식서 81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카르포와 성 알패오 사도

교회는 5월 26일을 카르포와 알패오 두 사도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알패오 사도는 열두 사도 중 야고보 사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카르포 사도는 70인 사도 중 한 명으로 사도 바울로가 디모테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리로 올 때에 내가 드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와 책들을 가지고 오시오."(II디모테오 4:13) 외투는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로의 망토와 같은 것으로 드로아스를 지날 때 카르포의 집에 두고 온 것입니다. 카르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사도들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머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환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마태오 10:41)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목자들의 사도적 사업을 도와주는 행위는 곧 교회와 하느님의 사업에 귀하고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오늘은 제1차 세계공의회에 참석했던 교부들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정교회는 매년 반복해서 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사건들을 단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다. 그 시대에 겼었던 모든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의 바른 믿음을 지켜 나가도록 경고하며 대비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 반복하여 상기하는 것이다. 교회를 지켜왔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겪는 여러 사탄의 유혹을 바로 물리치고 계속해서 교회를 바른 믿음으로 지켜 나가려는 것이 우리 정교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공의회에서는 지금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오스라는 사제로 인하여, 소아시아에 위치한 니케아에서 AD 325년에 318명의 교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 교부들이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각 지역의 성직자들로서 훌륭한 영적 믿음과 신학을 겸비한 분들을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셨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죄를 짓던 분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신 태초의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셨고 또 세상에서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또한 우리와 같은 육정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동정의 몸이셨던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구약시대의 많은 예언자들과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예언이 현실로 이뤄졌던 신약시대의 많은 사건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하느님이시면서 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었다. 하느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단순한 의인이 아니셨고 하느님이시다. 세상에는 의인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세상살이 할 때까지 만이지 육신이 죽음을 당한 후에는 자신조차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또한 진실한 의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서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런 진실을 바라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서도 모르는 아리오스의 가르침은, 인간 예수를 의인으로 봤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거의 1,7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리오스 주의를 따르는 자들과 그와 비슷한 무리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이미 단죄가 됐지만, 사탄의 흉계는 최후의 심판 날까지 이렇듯 교회를 현혹하여 하느님을 배신하게 해서 악의 무리에 들게끔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정교회는 천년 세월을 겪으며 얻은 소중한 바른 믿음의 자산으로 악의 무리와 싸우고 믿음을 보존하며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의 가르침은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당신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세요!

트리폰 수도원장

우리 모두는 날마다 적당한 양의 조용한 기도가 필요하다. 집 안에 우리의 (기도) 동굴이 될 수 있는 곳, 또는 기도하는 작은 공간 같은 완벽한 장소를 찾아낸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마음 속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곳은 가족, 근심, 걱정, 일, 이런 저런 잡다한 생각들에서 벗어나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평화를 발견하는 곳이 될 것이다.

예수기도는 완벽한 기도이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경배와 흠숭과 찬양의 기도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기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당신을 바로 하느님의 마음 속으로 이끌어준다. 이 기도는 '마음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로 사도의 권고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기도는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빼내어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게 해주며, 이 기도를 통해 당신 곁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므로써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봄 바자회

오는 5월 27일 오순절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 바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불가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5월 11일(금)에 최 플라톤 유아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봄 야유회

5월 27일 주일 성찬예배 후 봄 야유회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화명동에 위치한 공원부지로 넓고 환경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다 같이 참여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좋은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5월 21일(수) ▷ 성 콘스탄티노스 황제와 성 엘레니 모후 사도대등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 5월 26일(토) ▷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추도식
  (우리 교회의 모든 선조들을 기념하는 추도식에 꼴리바를 준비하여 모두 참여합시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 6371 / Fax (02) 365- 2698 / www.orthodoxkorea.org

제18- 20호 / 2018. 5. 20.